

광주시, 삼성전자 라인 이전 타격 협력업체 지원방안 마련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업종전환 지원

유휴인력 재취업교육 돕고 다른 분야 배치 추진도

광주시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생산라인의 베트남 일부 이전으로 타격을 입게 된 협력업체를 위해 유동성 확보, 업종전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협력업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협력업체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15개 협약은행과 협조해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신규대출 처리, 정책자금 상·하반기 분산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협약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해 상환 조정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체별 유휴인력을 파악해 산업부와 고용부 등 정부 인력 양성사업을 할

용한 재취업교육을 돕고 다른 산업분야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관로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지역과 산업연관성을 고려해 협력업체의 참여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 흡소공 입점 지원, 우수 중소기업 제품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시는 특히 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 등 지역 연구기관과 협조해 사업다각화와 업종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가전산업 관련 중견기업 유지 및 삼성의 신규 아이템의 광주 유지를 위해 지역단위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가전 협

력업체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연구소 설립 및 연구인력 지원, 전문가의 기업진단을 통한 맞춤형 신사업 설계 및 사업화 지원, 기업 간 협업을 통한 위기 관리 능력 배양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삼성전자 협력업체 50여 곳을 방문하고 12일 협력업체 대표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협력업체별 공무원 담당제 등 더 능동적 해결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시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생산 1개 라인의 이전 계획이 공개되자 지난 8일 가전산업 활성화 대책 간담회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윤장현 시장이 직접 삼성전자 광주사업

장을 찾아 회사 임원진에 생산라인 이전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추후 광주사업장의 라인 이전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광주사업장의 냉장고 생산라인 3개 가운데 1개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해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 투자가 광주사업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를 현실화했다.

1989년 설립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현재 4900명이 근무중이며, 연매출은 4조8000억원 규모다. (김지)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프레사 등을 주로 생산하며, 광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17.5%를 차지하고 있다. 연간 지방세도 300억원에 육박해 광주권 사업체 중 1위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정형외과용 의료기기센터 구축 탄력

내년 광역경제권거점사업 선정

광주시는 차세대 정형외과용 생체이식 융합의료기기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정부의 내년도 광역경제권 거점사업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비를 포함해 모두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원센터 건립(리모델링), 장비구축, 정형외과 인공관절 등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는 전남대병원을 주관 기관으로 광주테크노파크 등 국내외 기업, 연구소 등이 참여해 연구개발에 서부터 마케팅까지 산학연병(産學研病) 협력관계를 구축해 혁신적인 의료기기 산업발전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주지역에서 차세대 인공관절 관련 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해지고, 고부가가치 산업인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시장의 국산화 및 해외시장 진출

로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형외과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지난해 세계 시장 403억달러, 국내 시장 6100억원 규모다.

의료기기 수입 상위 30개 품목 중 정형외과 관련 부품이 10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공관절은 수입 의존도가 91%에 이르는 등 수입 위주 산업군이다.

광주시 주력산업으로 선정된 생체 의료용소재산업은 2002년 타이타늄 센터를 구축한 이후 관련 기업 수가 2002년 2곳에서 10여년만에 142곳으로 늘고 연매출 15% 이상 성장하는 차세대 유망 산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치과용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 구축에 이어 정형외과 용합 기반 구축으로 차세대 융합 의료기기 산업을 주도하게 됐다”며 “관련 산업 집적화 등 의료산업 선진 도시로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전남도 지난해 1.4% 불과

전남도의 지난해 사회적 기업 제품·서비스 구매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와 사업소, 출연기관이 지난해 일반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제품·서비스 구매 총액은 62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사회적 기업을 통한 제품·서비스 구매액은 9억원으로 전체 구매액의 1.4%에 그쳤다.

하지만 전년도 도와 사업소, 출연기관이 사회적 기업을 통한 제품·서비스 구매액(2억1000여만원), 구매율(0.63%)과 비교하면 구매액은 4배가량, 구매율은 2.5배가량 상승했다. 도내에는 현재 139개 사업적 기업이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군(群) 중 기업형태로 상위개념이고 정부합동 평가 때 중요한 지역경제 지표로 삼는 사회적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구매액과 구매율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업군에는 지정요건과 운영행태에 따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있다. 도내에는 사회적 기업 139개를 포함해 사회적 경제기업이 총 768개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사회적 경제기업 100개를 추가로 발굴, 1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민선 6기에 총 1천개의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도 관계자는 “공공구매가 가능한 사회적 경제기업을 발굴해 상품 포장지 개선, 공동 판권, 공동브랜드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왼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식 부총리·시도교육감, 누리 예산 입장차 여전

교육감들 “예산편성 할테니 추경 편성 요청”에 교육부 묵묵부답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들이 18일 처음으로 만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 편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별다른 소득 없이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단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복만 울산교육감, 감사인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부총리는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교육적 견지에서 시도교육감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해 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반면, 장휘국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교육청 재원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국고 지원을 주장했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

난 직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서로 입장을 충분히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할 테니 대신 교육부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교육감들이 이날 간담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유치원 운영 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구제역 청정지역’ 지킨다

축산 수송차량·농장 소독

위험지역 우제류 반입금지

구제역 청정지역인 광주시가 최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우제류(소·사슴·돼지·양 따위의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에 속한 목)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설치, 도축 제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전북지역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우제류(소·사슴·돼지·양 따위의 발굽이 짝수인 포유류에 속한 목)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설치, 도축 제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전북지역 구제역 유입을 차단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광주시는 우선 광주지역 우제류 농장과 축산시설에 긴급 소독을 하고, 우제류 농가에 전화와 문자서비스로 질병 유무에 대한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이어 구제역이 전북 고창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지난 14일에는 관내 포유류 도축장 2곳에 구제역 위험지역(충남, 전북)의 우제류 반입을 금지하고 도축을 제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5일에는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으로 북구와 광산구에 거점 축산 차량 소독장소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시는 앞으로도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도축장 소독을 강화하기 위해 차량 소독 설비를 지원하고, 도축장 내 계류장과 주변에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차단 방역과 우제류 농가에 대한 구제역 긴급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는 지난 2000년 구제역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남과 함께 내륙지역 중 유일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구제역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5월까지 특별 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우제류 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보급과 임상 예찰 및 백신 접종 현황 파악, 각 구청과 광주축협 공동방제단의 방제차량을 이용해 우제류 농가에 축산시설 소독을 하고 있다.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가격은 500만원대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선착순 동, 호수지정

문의 062 383-6400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